

현대차, 임단협 전문... '정년연장·성과급' 살바싸움 예고

노조, 24일부터 최종 요구안 확정
다음달 10일 노사 상견례 시작
최대실적에 치열한 신경전 예상



현대차 양재 사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제시할 최종 요구안을 확정 짓는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인상과 정년 연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4일 울산에서 대의원 대회를 진행, 사측에 제시할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면 다음달 10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한다.

노조의 요구안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난 8일 각 지부 및 지역위원회의 정책·기획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임단협 요구안 초안을 마

련했다. 임금협상안은 기본급 18만원 이상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다. 단체협상안에는 정년 연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협상 타결을 이뤘지만 올해 현대차 노사 임단협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사간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노조는 조합원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64세까지 회사에 재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기존 60세에서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측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노조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최근 현대차 노조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정년 연장을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의제로 답했다. 특히 올해 단체협상에서 파업해서라도 노동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51%)을 넘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는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며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국내 공장들은 올해 1분기 원래 생산능력(42만 7081대)보다 더 많은 48만 2326대를 생산하는 등 공장 가동률 높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신형 쏘나타 디 엡지는 당장 계약해도 인도받기

까지 최대 10개월 가량 소요되며, 신형 그랜저의 경우 트림별로 각각 4개월과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올해는 난항이 예상된다"라면서도 "올해 초 특별 성과급 지급 등 회사 성과를 공유한 만큼 노사가 올해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올해 초 전 직원에게 1인당 400만원의 성과급과 일정량의 주식을 지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해양보호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천

한국물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미세플라스틱 케어' 세탁 코스 독려 등
해양 생태계 보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오른쪽)과 한국물포럼 박경호 총재.

LG전자가 한국물포럼과 해양 생태계 사수를 위한 실용적인 해법 마련에 나선다.

LG전자는 한국물포럼과 22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물포럼은 글로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활동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구다.

LG전자는 한국물포럼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고객 참여 프로세스와 환경 관련 연구개발 협업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행사와 제작 콘텐츠에서 LG전자가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 수준이다. LG전자가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는 트럼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6모션으로 섬세한 세탁을 구현해 세탁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

탁 과정에서 옷감의 마찰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70% 감소시킨다.

LG전자는 지난달부터 UP가전 트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공개 한달 여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2000건에 달할 정도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길 원하는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알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달부터 '미세플라스틱 케어 챌린지'를 진행한다. 챌린지 기간 내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LG 씬큐(LG ThinQ) 앱 리워드와 동일한 금액을 한국물포럼에 전달해 필요한 곳에 기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전자는 최근 개발한 수용성 유리파우더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용성 유리파우더는 물에 녹으면 무기질 이온 상태로 변하는 소재로, 해양 생태계 복원과 적조현상을 줄이는 황토 대안으로 쓸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1996년 유리 파우더 관련 연구를 시작해 2013년 북미에 출시된 오븐에 자체 개발한 기능성 유리 파우더를 첫 적용했다.

오븐 내부의 금속 표면을 기능성 유리 파우더로 코팅해 내부 세척을 간편하게 하는 '이지클린' 기능을 탄생시켰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용성 유리 파우더는 물론 항균 작용을 하는 '항균 유리 파우더' 등을 만들어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은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뿐만 아니라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가전을 사용하면서 LG전자의 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엠블럼 공개

유니폼과 원형·방패형 엠블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 엠블럼&유니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사업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23 누리호 엠블럼' 2종과 이를 적용한 유니폼을 22일 공개했다. 24일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미지의 영역인 우주에 대한 한화의 도전정신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공개한 엠블럼은 원형과 방패형의 총 두 가지다. 원형은 우주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순환을 상징한다. 가운데를 관통하는 누리호는 지구와 우주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빛나는 별들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위해 헌신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 등을 의미한다.

방패형은 전장에서 앞장 선 방패를 모티브로 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우주산업 분야에 앞장서 도전하겠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의지를 시각화한 것으로 누리호와 함께 미래 탐사 목표인 달과 화성을 배치했고, 우주 탐사의 열정과 기술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헤리티지 감성을 표현했다.

엠블럼에 적용된 유니폼은 2018년 평

창올림픽 의상 감독을 맡았던 디자이너인 송자인 씨와 함께 제작했다. 빛나는 별을 상징하는 은색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발사체의 형상을 날렵하고 역동감 있게 깃과 포켓, 지퍼 등에 적용했다. 실제 옷을 착용하는 임직원들의 활동성과 통기성을 감안해 뒷면을 절개하는 등 실용성도 고려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현장을 비롯한 주요 우주 사업 이벤트에서 엠블럼과 유니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우주 분야에 도전하겠다는 한화의 의지를 상징물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싶다"며 "많은 국민이 누리호와 우주에 관심을 갖도록 굿즈(기념품)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고성능 전기차 타이어 '아이온 에보' 출시

배터리 무게 대응 EV 형상 기술 적용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고성능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에보(iON evo)'와 '아이온 에보 SUV'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전기차는 순간 출력(토크)이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웃돌아 본연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보

인 아이온 에보는 한국타이어의 '아이온 퍼포먼스 테크놀로지'가 탑재돼 뛰어난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력은 물론 저소음, 전비, 마일리지(연비) 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의 강력한 순간 토크와 배터리 무게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EV 형상 기술'을 적용해 코너링 강성을 최대 10% 향상시켰다.

또 실내 소음은 최대 18%까지 낮추며 전기차에 최적화된 저소음 환경을



한국타이어 고성능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제품 아이온 에보.

고현했다.

/양성운 기자

5가지 분산된 앱 한 곳에 모아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2일 통합 고객 서비스 앱 'MY GENESIS(마이 제네시스)'를 출시했다.

마이 제네시스는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차별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존 5개로 분리된 앱의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제네시스는 ▲충전, 정비, 세차 등 차량 관리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MY GENESIS' ▲차량 제어와 상태 확인이 가능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별도의 키 없이도 차량 시동 및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디지털 키' ▲차량과 앱을 연동해 제휴처 상품 결제 및 포인트 관리가 가능한 '제네시스 카페이' ▲빌트인 캠을 통해 차량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빌트인 캠' 등 5가지 앱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앱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 고객들은 차량 구매 정보부터 차량 관리, 차량 제어, 편의 서비스 등 제네시스와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의 앱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마이 제네시스' 통합 고객서비스 앱 선포